

배포일시	2020. 9. 28.(월) 10:00 (총 3매)	보도시점	2020. 9. 28.(월) 17:00
담당부서	예보정책과	담당자	과장 인희진 사무관 이승법
		전화번호	02-2181-0492 02-2181-0493

기상청, 올해 장마가 긴 이유 등을 규명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!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9월 28일(월) 최근 장마특성을 분석하고 장마 개념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한 ‘장마 토론회(포럼)’을 개최했다.
 - 올해 기록적으로 길었던 장마 기간과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어느 해보다 장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.
 - 이 토론회에서는 △ 2020년 우리나라 장마 현황 △ 장마 전망에 대한 분석·소통의 어려움 △ 장마특성 변화에 따른 장마개념 재정립 등의 주제들을 논의했다.

- 특히, 올해 장마를 ‘장마전선’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.
 - 그동안 장마를 정체전선으로 인해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정체전선을 ‘장마전선’이라 부르고 있었으나,
 - 올해는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체전선, 저기압, 대기불안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다.
 - 최근래 장마 기간에 정체전선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, 장마 기간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많아 장마 기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국민이 장마를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른 장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

-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,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.

[장마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]

- ▷ 우리나라의 여름철 집중호우가 열대지방 호우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, 장마철에도 뚜렷한 정체전선이 보이지 않아 정체전선을 설명하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
- ▷ 장마철 집중호우는 종관규모부터 중규모까지의 다양한 요란 시스템(저기압, 대기불안정)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
- ▷ 장마 기간 전후에도 대기불안정에 의해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장마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
- ▷ 장마철 집중호우 예측성 향상을 위한 집중관측과 분석, 수치모델의 종합적인 연구 추진이 필요

- 기상청은 이번 토론회의 논의된 결과를 활용하여, 앞으로 여름철 장마와 관련한 예보 및 전망 발표 시, 장마에 관한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다.
 - ‘장마전선’이 아닌 ‘정체전선’을 사용하고, 장마 기간을 ‘장마철’로 표현해 나갈 예정이며,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을 밝혔다.

- 불 입: <장마 토론회> 행사일정

장마 포럼 행사 일정표

시 간	주 요 내 용
14:00~14:30 (30분)	○ 포럼 참여자 영상회의 접속
14:30~14:35 (5분)	○ 개회 및 행사 안내 - 개회(예보국장) ※ 행사 안내 및 진행(이희춘 연구관)
14:35~15:35 (60분)	○ 주제발표 [1] 2020년 우리나라 장마 현황 및 특성 [2] 수치예측모델의 장마철 예측특성과 개선방안 [3] 장마 전망에 대한 분석 및 소통의 어려움 [4]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기상청의 장마 [5] 장마전선의 새로운 정의 제시
15:35~15:50 (15분)	○ 휴식
15:50~17:30 (100분)	○ 패널토론 - 주제: 장마특성 변화에 따른 장마 개념 재정립 - 좌장: 장은철(공주대학교 장마 특이 기상 연구센터) - 토론자(7인) · 국종성 교수(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) · 이종우 교수(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) · 서준표 박사(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) · 이옥수 이사(달로이트안진 회계법인) · 이근영 선임기자(한겨레) · 인희진 과장(기상청 예보정책과) · 한상은 기상전문관(기상청 예보분석팀) ※ 청중 질의응답 병행
17:30~	○ 폐회